

양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상반기 30억 원 융자·연 0.8% 초자금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제조업은 최대 3억 원, 도·소매업과 기타 업종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특히 대출 금리를 연 0.8%로 동결해 서울시 차치구 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2월 2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

단, 무점포 소매업, 담배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과 공고일 기준 기존 수혜업체(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경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13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대출액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양

천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3월 말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초 스마트시니어 교육센터, 어르신 디지털 체험 교육 강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시니어 AI 교육 공간인 '서초 스마트시니어 교육 센터'(시평대로 273)에서 다양한 신기술 기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디지털 교육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초 스마트시니어 교육센터'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전용 특화 공간이다. 2025년 기준 총 280개 강좌(2,812시간)에 4,668명이 참여하는

등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올해 체험 중심의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센터 내 시설과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했다. 먼저 '어르신 체력 강화 XR 스포츠실'을 새롭게 조성해 날씨와 계절에 제약 없이 사계절 내내 실내에서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커뮤니티룸을 리모델링해 마련된 XR 스포츠실에서는 골프, 볼링, 양궁 등 실제 경기와 유사한 환경의 X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운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참여를 돋운다.

이울러 센터에서는 3D 센서로 신체를 활용해 체형과 신체 상태를 정밀 측정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I 운동돌봄 플랫폼'과 'XR 스포츠'를 연계한 정기 강좌를 신규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신체활동과 건강관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로구, 의료·청소부터 이웃 봉사까지 '든든한 설 준비'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연휴 중 진료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쓰레기 배출일 조정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봉사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보건소 비상진료반이 내과 진료를 실시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구로성심병원은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청소 분야에서도 연휴 기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구는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연휴 기간 중 쓰레기 배출일을 조정해 무단 배출과 미수거를 예방한다.

'월·수·금' 배출지역은 2월 16일, '일·화·목' 지역은 2월 17일 배출이 금지되며, 이후에는 지정일 저녁 8시부터 정상 배출할 수 있다. 배출일 변경 시황은 각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 사전 안내했고, 동별 3개 소씩 총 4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집

중 흥보했다.

식품안전과 시설 위생 확보를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구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건강 기능식품판매업소, 축산물취급업소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관리 상태, 보관기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면밀 성수식품 16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병·의원 및 약국 명단은 2월 13일 최종 확정되며, 응급의료포털(E-Gen)과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보건소 비상진료반이 내과 진료를 실시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구로성심병원은

2월 16일, 17일 배출이 금지되며, 이후에는 지정일 저녁 8시부터 정상 배출할 수 있다. 배출일 변경 시황은 각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 사전 안내했고, 동별 3개 소씩 총 4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집

중 흥보했다.

식품안전과 시설 위생 확보를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구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건강

기능식품판매업소, 축산물취급업소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관리 상태, 보관기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면밀 성수

식품 16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병·의원 및 약국 명단은 2월 13일 최

종 확정되며, 응급의료포털(E-Gen)과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보건소 비

상진료반이 내과 진료를 실시한다. 고

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구로성심병원은

2월 16일, 17일 배출이 금지되며, 이후에는 지정일 저녁 8시부터 정상 배출할 수 있다. 배출일 변경 시황은 각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 사전 안내했고, 동별 3개 소씩 총 4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집

중 흥보했다.

식품안전과 시설 위생 확보를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구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건강

기능식품판매업소, 축산물취급업소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관리 상태, 보관기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면밀 성수

식품 16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병·의원 및 약국 명단은 2월 13일 최

종 확정되며, 응급의료포털(E-Gen)과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보건소 비

상진료반이 내과 진료를 실시한다. 고

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구로성심병원은

2월 16일, 17일 배출이 금지되며, 이후에는 지정일 저녁 8시부터 정상 배출할 수 있다. 배출일 변경 시황은 각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 사전 안내했고, 동별 3개 소씩 총 4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집

중 흥보했다.

식품안전과 시설 위생 확보를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구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건강

기능식품판매업소, 축산물취급업소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관리 상태, 보관기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면밀 성수

식품 16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병·의원 및 약국 명단은 2월 13일 최

종 확정되며, 응급의료포털(E-Gen)과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보건소 비

상진료반이 내과 진료를 실시한다. 고

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구로성심병원은

2월 16일, 17일 배출이 금지되며, 이후에는 지정일 저녁 8시부터 정상 배출할 수 있다. 배출일 변경 시황은 각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 사전 안내했고, 동별 3개 소씩 총 4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집

중 흥보했다.

식품안전과 시설 위생 확보를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구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건강

기능식품판매업소, 축산물취급업소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관리 상태, 보관기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면밀 성수

식품 16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병·의원 및 약국 명단은 2월 13일 최

종 확정되며, 응급의료포털(E-Gen)과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보건소 비

상진료반이 내과 진료를 실시한다. 고

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구로성심병원은

2월 16일, 17일 배출이 금지되며, 이후에는 지정일 저녁 8시부터 정상 배출할 수 있다. 배출일 변경 시황은 각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 사전 안내했고, 동별 3개 소씩 총 4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집

중 흥보했다.

식품안전과 시설 위생 확보를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구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건강

기능식품판매업소, 축산물취급업소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관리 상태, 보관기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면밀 성수

식품 16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